KB증권

2025년 5월 13일

아시아주식 Strategist 박수현
shpark@kbfg.com
연구원 노승국
seongguk.roh@kbfg.com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 China Issue Tracker

미중 정부가 공개한 무역합의 평가의 온도차가 의미하는 것

미국, '중국시장 개방 + 펜타닐 공급 차단'을 협상 성과로 제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90일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145%를 30%로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125%를 10%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로 중국시장 개방과 펜타닐 공급 차단을 약속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시장 개방과 관련해 문서화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지층을 고려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에 부과한 개별 관세는 이번 인하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고, 미국 내부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많은 협상안을 받아낸 부분을 강조했다.

중국, '평등한 협상 + 미중갈등의 장기성, 복잡성 강조'. 공동성명 발표 당일 광물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합의에도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신화사의 사설이 공개되었고, 이번 협상을 주도한 허리펑 부총리도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중국 다수 언론은 미중갈등의 장기성, 복잡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한번의 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다수였다. 트럼프의 성과 과시와 대조적으로 공동성명 발표 당일 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공개해 전략자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한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제조, 판매, 수출 모든 단계에서 정부 주요 부처와 협력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제3국으로 운반하기 위한 우회수출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美 성과 과시 vs. 中 신중한 태도. 중국은 장기전 준비태세 지속, 첨단기술 개발 집중할 것. 기술주 선호

이번 협상을 주도한 허리펑 부총리는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이 언급한 중국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 또한 펜타닐은 중국이 꾸준히 공급 차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 필요에 의해 진행한 협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지 않고, 관세를 내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관세 인하 발표로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단기 시장 상승을 제약할 수 있으나, 지난 자료에서 분석한 것처럼 1)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내수경기 (4/30, 5/12), 2)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영역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기술주 (항셍테크지수, 과창판 등) 주도의 상승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표 1. 중국 정부가 공개한 미중 무역 합의 내용

항목	내용
공동성명 (중국 측)	- 4 월 4 일 이후 발표한 보복성 관세 조치 및 비관세적 보복조치 모두 취소 - 4 월 4 일 발표한 34% 관세 부과 중 10%는 그대로 부과, 나머지는 90 일 유예
관영매체 논평	-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갈등 접근 필요하며, 일회성 회담으로 모든 갈등 해소할 수 없다고 언급
상무부 대변인	- 펜타닐, 시장개방 관련 언급 無

자료: 언론보도, KB증권

표 2. 미국 정부가 공개한 미중 무역 합의 내용

항목	내용
공동성명 (미국 측)	- 5/14부터 보복관세 115%p 인하하기로 협상 (90일) - 미국의 중국 상품 관세 145% → 30%로 하향 조정 - 대신 펜타닐 반입 관련한 추가 관세 20%는 유지 - 중국의 모든 비관세 장벽 유예 및 철폐
미국 정부 언급 내용	- 중국의 시장 개방을 언급. 다만 실제 합의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언급 -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 밀거래 단속에 대한 논의 진행

자료: 언론보도,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